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2월 2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에베소서 1장 3-6절

설교제목 : “예정 선택”

예정과 선택의 주제는 부담스런 주제이나, 성경이 분명하게 구원에 있어 예정과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선택의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정론은 **칼빈의 이중 예정론**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당신의 주권으로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구원하시로 선택하고, 누군가는 유기하기로(지옥에 가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의 이중 예정론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우선, 이중예정론과 소위 운명론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내가 지옥가기로 결정되어 있다면, 그 책임이 어떻게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중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옵니다. 또한 말씀의 충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길 원하십니다.(딤후2:4, 요3:16, 뱀후3:9)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결정하셨다는 것은 이러한 성경의 내용과 서로 상충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예정과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이 성경에 27번 등장합니다. 예정이란 말은 4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정과 선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택하사**’(엡1:4), ‘**우리를 예정하사**’(엡1:5)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열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이란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복입니다.(4-5절) 즉 구원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을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하셨습니까. 창세전에 결정하셨습니까.(4절) 이것을 칼빈은 이중예정론에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유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3-14절까지 12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고 합니다.(4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지옥에 가도록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멸망입니다. 그런데 다시 5절을 봅시다. 본문은 분명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미리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도록 예정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2과 로마서 8:29을 함께 봅시다. 뱀전1:2 “곧 하나님의 미리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롬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에

핵심 단어가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참고/시139:1-6)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하여도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을 것인가 아닌가를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유의지가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믿을 사람은 구원되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을 사람은 지옥에 가도록 예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면 믿도록 교정해 주시면 안 됩니까? 교정하면 자유의지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지만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에 근거하여 사람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예정과 선택이 주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정과 선택은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입니다. 실은 예정과 선택은 현재 내가 구원에 자리에 이른 시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태초에서 구원을 생각하다보니,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니, 결코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와 같은 내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정과 선택입니다. 예정과 선택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고백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입니다. 또한 예정과 선택은 구원의 확실성을 위한 것입니다. **롬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의 선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확실하게 완성시키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상황으로 나의 구원이 좌절됨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견고함 속에 굳건히 서시길 축복합니다.

## ※.말씀 나누어보기

- 1) 칼빈의 이중예정론은 무엇이고, 이중예정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2) 예정과 선택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말씀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